

AUTHOR 한철하

TITLE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기도론의 비교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 no.2 (February, 1983):296-308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기도론의 비교

한 철 하

〈아세아연합신학대학학장·조직 신학〉

현대신학의 문제점은 교리적 부정확성이나 교리적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신앙에 문제가 있다. 바르트의 기도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리는 말하자면 신앙의 문법과 같은 것이다. 교리가 틀리면 신앙의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고, 그 교리를 토대로 하는 신앙의 언어가 정확할 지라도 그것이 말 뿐이고 사실적인 신앙이 아닐 때 신앙의 응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신앙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다.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 3권 제 4부에서 기도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도론 첫머리에서 “고백”과 “기도”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고백”이 의도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 존영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서 받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C.D. III/4, p.87). 그러므로 바르트는 기도의 중심을 “간구”(petition)에 둔으로서 그는 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전통에 확실히 서고 있다. 그는 “기도는 결정적으로 간구다”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다. “사실 인간이 다만 어떤 특정한 것 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찾고 구하고 받는 것이 높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란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Ibid)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祈禱論의 비교 297

존영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일 만이 하나님께 존영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구하고 받는 일이 사실 더욱 하나님께 존영을 돌리는 일이란 것을 밝히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바르트는 기도가 왜 “간구”(Petitionary prayer)가 되어야 하는가를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our absolutely needy relation to God)이라고 한다. 이것은 슐라이엘막헬의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존”의 감정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도”란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게 “어떤 상대적인 것”을 얻고자 “간구” 하는 데 있는 것이란 사실이다. 바르트의 기도론이 이 절대적존의 국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기도론 그 자체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일어나는 기도의 행위의 자리가 전자의 국면 즉 “절대적존관계” 속에서 해소되어 버리고 만다. 위에서 인용한 그의 기도론 머릿말에 있어서 이점이 벌써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다만 어떤 특정한 것 뿐이 아니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찾고 구하고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란 말은 사실 “기적은 없다”란 말과 같은 말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not just something but everything”이란 말은 일견 신앙의 말이기 는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Something”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어떤 “특정한 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은 이 “특정한 것”들의 세계에는 관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하다.

바르트에 있어서 기도가 왜 간구의 기도(Petitionary prayer)가 되어야 하느냐의 둘째 이유도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기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인간 그 자신이다. 여러 다른 영역에서 기능을 가지며 봉사하는 인간 즉 가면을 쓴 인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신이다”(Ibid p. 98)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실존주의적 견지에서 보는 관점이다. 인간 그 자신을 그가 속하는 세계와 예리하게 구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한 자아에 관련 시키는 입장이다. 폴 틸리히에 있어서 모든 인생문제가 다 신학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 문제”(the question of ultimate Concern) 만이 신학적 문제가 된다는 입장과 상통한다. 이 모든 사상은 키엘케골의 죽음 앞에 서는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를 발견하는 실존주의적 입장으로 소급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국면임에 틀림 없다. 고독한 인간, 홀로 서는 인간은 인간의 한 국면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 속에 창조 되었고, 각양 관계 속에 살고 있고 상대적인 사물들과 일용할 양식을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죽음의 심각성에 직면하여서 우리 자신을 긍정한 후에 우리는 그날 그날의 필요 때문에 허다한 전 궁극적인(Pen-ultimate) 것 들 때문에 역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저 “다른 영역”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장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해야 할 곳도 바로 이 “다른 영역”들에 불과하다.

바르트는 주기도의 주제가 “우리”로서 되어 있음을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도”라고 못 박음으로서 개인 기도와 개인적 필요에 응한 기도의 면을 약화 시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사적인 종교적 행위(Private religious action)와 구별짓게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기도가 개인적인 간구로서 사사로운 필요한 것이나 욕망을 말하는 일로 되기 쉬운데 그 이기적인 성격(egoistic character)을 제거하여 준다”(Ibid, p. 103) 이 말에 틀림이 없다. 칼빈도 그의 주기도문 해석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땅위의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속으로 세우신 저 공동체를 고려에 넣은 것이어야 한다”(Inst, III, XX, 38)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곧 이어서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

이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말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조금도 잘못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것은 기도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인적 필요로 인한 기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심의 제기가 무시되는 경향이다. 이것은 칸트 이래로 독일신학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 기복종교와 도덕적 종교를 구별하는 가운데 기독교 종교의 기복적 성격을 배척하는 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치병이나 굶주림 등에 대한 개인적 또는 인간적 수요를 채우신 것은 기도의 공동성과 개인적 요소를 모두 중요시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의 손에서 받는가 여부에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가에 있다. 이 점은 우리의 개인생활의 절박성 속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바르트에 있어서 이 점이 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바르트가 기도의 구체적 형태를 전개하는 마당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개인기도(private prayer)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p. 110 참조). 그리고 모든 간구는 “중보기도”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바르트는 “즉석기도”(extemporary prayer)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기도를 예식화 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간구”하여 “받는” 점이 약화되고 있다. 물론 기도의 이와같은 일반적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다음과 같은 바르트의 말은 이 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르트는 기도란 것은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배후에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 확실하고 또한 겸손과 순종으로 그에게 오는 자들의 빈 손에 채워 주실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기도의 핵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도의 원칙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 문제에 이룰때 문제는 극히 모호하게 되어 버린다. 반면에 우리가 칼빈에 이를 때에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되고 바르트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웅변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강요 3권 22장의 긴 장에서 기도는 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엇을 얻는 일이라고(to obtain Something from God) 정의 함으로서 “간구”(petition)의 문자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견지한다. 이것은 현대신학들이 소위 “기복종교”를 배격하고 또 성숙한 시대에 자립한 인간들이 이제까지의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인 신을 배제하는 입장과는 정 반대에 선다. 서론적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정의한다.

“분명히 하늘 아버지는 충분한 이유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있다.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우리는 그의 섭리의 임재를 불러 일으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 주시고, 또 연약하여 쓰러져 가는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비참하게 죄짐에 깔린 우리를 그의 선하심으로 은총 안으로 영접하여 주신다…… 우리의 질병도 한가지도 그에게 숨기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에게서 쉴 수 있고 그는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돌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한다”(§2).

칼빈은 우리의 기도가 무용한 것이 아니란 것을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그에게로 달려가는 습성을 길러야 하며, 둘째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중심을 그의 앞에 토하여 냄으로서 그를 증인으로 삼는 일을 부끄러워 말아야 하며 셋째로, 그의 은택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며, 넷째로, 이와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구한 것을 그의 응답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친절 하심을 더 뜨겁게 깨닫게 되고, 다섯째로, 기도로서 얻게 된 것들은 기도로서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의 섭리의 실재를 더 확신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도우시되 다만 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3). 여기서 칼빈은 성경의 기도예 대한 가르침 즉 “구함—주심”의 공식에서 추호도 떠나지 않는다.

칼빈의 바른 기도의 배가치 원칙도 엄격히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마음을 예리하게 가다듬어 하나님에게 향하여야 하며, 우리의 중심의 감정도 마땅히 이에 수반 되어야 한다” 둘째 규칙은 심각한 필절감과 참회다.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그것을 꼭 얻어야 하겠다는 불타는 심정으로 간구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칼빈은 바르트가 즉석기도(extempary prayer)를 배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정한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기도를 공격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낭독하고 있을 뿐이다. 칼빈은 이 둘째 규칙과 셋째 규칙에 있어서 “통회와 회개”를 강조한다.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할 때 먼저 심각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 “합당한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히 용서를 비는 일이고 죄에 대한 심각한 참회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얻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연고자 바라서는 안된다.” (§9)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실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칼빈은 경계한다. “내가 방금 말한대로, 인간의 부패는 극도에 달해서 왕왕 많은 것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그의 친절한 손에서 받으려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올 것을 계산에 넣고 기도한다. 아니, 마치 이미 저들의 손에 넣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른 기도의 넷째 규칙은 확신의 기도다. 즉 우리 기도가 꼭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이다. 여기서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7) 칼빈에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시며 우리를 선히

다루신다는 확실한 지식이다 (§11).

칼빈의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이 점에 있어서 기도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 장 초두에 그는 벌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출발한다. 인간 자신에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 대신에 모든 행복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궁 대신에 부요함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어,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대를 오로지 그에게만 걸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그에게만 두고 그에게 집착하게 하신다.”

“아버지는 그의 모든 충만한 풍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마치 흐르는 샘에서 물을 건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끌어 얻게 하시었음으로 우리로서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찾아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도로서 그에게 구하는 길 밖에 없다 (§1).

바르트는 그의 신학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집중(Christological Concentration)을 시도한다. 그러나 바르트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집중은 우리를 제3의 차원으로 흡수하여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의 시간에서 제3의 시간 즉 은총의 시간 안으로 이 특유한 제3시간(Menschen Zeit와 Gottes Zeit와 구별되는 die dritte Zeit) 안에서 그 넘쳐 흐르는 은총으로 인하여 다만 찬송과 감사를 올릴 뿐이지 어떤 것을 더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으로 인하여 인간의 시간(Menschen-Zeit)의 실재성을 망각하는 일이 결코 없다.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엄격히 성서적 가르침인 기도의 “구함—주심”의 성격과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는 규칙이 확립 되었고, 또 그에게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들으심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도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또한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부르짖을 것을 명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17).

그러므로 칼빈의 신앙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은 기도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이름으로 받음” 칼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중보에 의지하도록 명하시는데 있어서의 때의 문제다. 즉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에게 의지하도록 명하시는 일이다. 그는 말씀 하시기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요 16:26)고 하신다.

기도의 이 원칙은 구약시대에 벌써 실행되어 왔음을 칼빈은 지적한다.

구약의 성도들도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들의 소망을 희생제사에 걸어 왔다는 것을 본다. 희생제물이 모든 간구를 성별시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추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로 유회하시었으며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었음을 알 수 있다 (§18).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때를 지정하시었을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요 16:24)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보다 더 확실한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8) 그리하여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성이 “제 3시간”이란 모호한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불분명하게 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to obtain something from God)이란 근본 성격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칼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근거를 그리스도의 하늘의 증보사에서 찾고 있는 것은 바르트의 기독교론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빼버린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C.D. IV. 1, p. 314ff).

기도에 있어서 “감사”의 수반문제를 논할 때 칼빈과 바르트는 역시 대조적이다. 바르트에 있어서 “감사”는 기도의 “뿌리”요 본질적 이요, 필수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뮌스터 대학의 헬무트 엡셔 교수가 바르트의 기도론에 있어서 “간구”가 아니고 “감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감사는 사실 기도의 뿌리다. 감사는 기도의 행위의 객관적인 신적 기초에 관련된다. 감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기도 명령 즉 인간에게 자유로히 허락하신 기도예의 초대요 허락인 하나님의 기도 명령과 직결된다. (C.D. III/4 p. aa).

하나님의 기도 명령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기도예의 초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감사 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이와같이 물흐르듯이 쉽게 관련되는 기도예에 있어서의 “감사”의 본질적 수반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 쉽게 넘어 가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바르트가 인생교에서는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서서의 부유한 대학 강의실 안에서 신학적 이해를 개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칼빈은 내세의 위로로서 힘을 얻고 있는 개혁자들의 환란과 고통에 찬 삶의 장에 있어서의 실제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 즉 바르트와 칼빈의 삶의 처지의 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환란과 비통속에 살지 않을 수 없는 신자들의 삶의 처지”를 그대로 직면하여 다루고 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흔히 짜증과 성급함과 저리함과 근심걱정 때문에 오히려 원망에 빠지기 쉬우나 칼빈은 빌립보서 4:6

이하의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송할 까닭을 더 구체화 한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일이 거의 반대되는 처지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말씀이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한 유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심으로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28) 말하자면 칼빈은 기도예에 있어서 간구와 감사의 필연적 관련성을 논할 때, “그는 우리에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하여 주심으로서 (because he offers us unfailing reasons to praise and pray)” 간구에 있어서 감사가 수반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8) 요컨대 칼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걸드리는 이유를 논하면서도 기도의 기본공식 “구함—주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여려가지 것을 주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기도(private prayer)”와 “공중기도(public prayer)”중 어느 편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바른 이해가 바르트에 있어서와는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는 개인적으로나 숨어서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 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반면에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동한히 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부지런히 공중회집에 쫓아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바람피우는 기도예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숨은 판단을 중히 여기기 보다 인간의 의견을 더 중히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 (§ 29).

칼빈은 개인기도와 공중기도 양자가 다 중요함을 잘 설명하는 동시에 개인적 기도생활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공중회집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른기도, 기도의 표준을 공중기도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공동체를 떠나서 개인기도 생활에

만 중시하여 가지고는 바른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생활이 없이 각종 공동예배회집에 아무리 빈번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는 “바람피우는 기도(windy prayers)”를 꾸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숨은 판단”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르트에 있어서는 이 균형잡힌 바른 관계가 한편으로 치우쳐 버린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무 형식도 없는 것 보다 좋고, 개개인이 자유로이 흠어져서 기도하는 것 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기도함이 더 좋다”(Ibid., p. 112)고 바르트는 말한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즉석 기도(extemporatory prayer)” 보다는 “문서기도(formulated prayer)”를 지지하고, “개인기도” 보다는 “공중기도”를 중시한다.

물론 바르트는 공중기도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공중기도가 “실지로 간구하기 보다는 하나의 가면을 꾸며내면, 하나님의 초대와 관련해서 좋은 양심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한 틀을 꾸며내는 것에 불과하게 되기 쉽다”(Ibid., p. 113). 그러므로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될 필요도 있다 칼빈이나 바르트가 다 마태 6:7 이하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으나, 바르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부분을 중시하여 기도가 “간결”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기도”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칼빈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대로 하늘의 스승께서 기도의 최고의 규칙을 제정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침실로 들어 가라고 명하지 않았다. 거기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도록 하라고 명하시었다 (§ 29).

바르트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버렸고 또 그의 기도관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칼빈은 예수께서

친히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어서 기도 하시는 관습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임으로서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 유익을 얻게 하시었다고 부여한다.

바르트의 기도론에 개입되는 근본 문제는 사실 기도의 외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르트의 기도론에 있어서 기도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구함—주심”의 성격이 극히 약화 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칼빈에 있어서는 기도의 이 성격이 중심의 흐름으로서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기도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fleeing to him in every need) 그리스도인의 본능적 행위이다. 우리의 소원을 그의 앞에 아뢰고 충심으로부터의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허락하심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의 손에서 바라던 것을 얻게 될 때 그의 친절하심에 대하여 더 열심히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그와같이 하여 받게 된 것은 다른 근원에서 받은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기도다. 이와 같이 하여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칼빈의 기도론의 골자다.

이 점은 서양의 현대신학이 일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점이다. 본 회퍼가 “해 묵은 옛 작업가설(the age-old working hypothesis)”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 없이” 성숙한 인간으로 하여금 계발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바르트가 이미 장만한 신학적 입장을 더 솔직하게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일은 미신에 속하는가? 더우기 기도의 결과로 어떤 것을 기적으로 얻게 될 때,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우연이라고도 하고, 그 배후의 자연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될 때, 그것이 초자연적 영적존재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미신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자연적 방법에 의해서만 그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다 포기한 병을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고 간구 함으로서 나음을 얻은 예는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다. 또 현대의학 자체가 이 의학을 넘어서는 차원의 도움을 중시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질 때 현대의학의 통상적 임상과정으로서 교과서에 없는 일이지만 자연적인 어떤 새로운 생명력이 돌연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건강함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을 피조계를 지배하는 더 다차원의 복합적 법 체계 속에서, 즉 수학적, 논리적, 물리적, 심리적, 경제—사회적, 윤리적, 복합적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더우기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선성과 궁극성을 보게 되는 우리에게 창조자의 초자연적 능력의 간섭을 간구하는 것이 극히 당연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다. 칼빈은 이 신앙의 경험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왔고, 또 역사적으로 확인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도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섭의 통로이다. 그러기에 칼빈이 “기도는 신앙의 주요활동(prayer is the chief exercise of faith)이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

목사로서의 칼빈